나마스떼!

고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저희와 인도침례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목사님과 최성은 담임목사님, 성도님 들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인도의 극한 코로나 팬더믹 상황으로 고인이 되거나 후유증으로 어려워하던 가정들과 직장을 잃고 힘들어 하던 인도침례신학교에 속한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지구촌교회의 코로나 재난 구호 지원을 받아 힘을 얻고 코로나 환경도 많이 좋아져 일상이 정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에서 저희 인도침례신학교 코로나 구제 사역을 위해 지원해 주신 후원금 1,800만원을 지난 9월말부터 11월 초까지 인도의 북부와 동부, 중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인도침례신학교 소속 34명의 학생과 인도 교수 1명 그리고 인도 침례교 선생님들과 협력하는 15교회 목회자와 교회들을 지원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인도 수도인 델리와 인근의 가지아바드, 구르가온, 유피 주의 바라나시와 사하란뿌르, 가지아바드, 동인도의 콜카타와 오리사지역, 중부 인도인 뭄바이와 마디이 프라데시 주의 사돌과 카트니, 딘도리와 니와스등의 지역교회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정 지출은 현재 인도침례신학교가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34명의 학생들과 1명의 인도교수에게 사이버 통신 수업을 위하여 각각 1년치의 인터넷 데이타를 충전해 주었으며 현재 학생들이 인터넷 줌수업을 통하여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확진 된 성도들을 돌보다가 사망하신 목회자들과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목회자들이 많아 빠른 회복과 위로를 위하여 목회자의 가정에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성도님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과 의료품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직장을 잃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미망인과 고아원의 원아들에게 풍성한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어려워하던 목회자 가족들과 후유증과 직장을 잃고 낙심하던 교회 성도들이 지구촌 교회의 기도와 후원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각 지역에서 코로나 지원사역이 끝나 종합하여 감사서신과 사역사진들을 첨부하여 보내 드립니다.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침례교 선교사들 모두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목사님과 최성은 담임목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인도침례신학교 학장

곽 야곱 선교사 드립니다.